

1994년 세계경제전망

1. 세계경제전망(OECD)

가. 선진국의 경제전망

'91년부터 3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1% 내외의 저성장에 머문 OECD경제는 '94년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 성장률이 2%를 약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'95년에는 3%대의 성장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.

미국을 비롯한 캐나다, 영국, 호주 등 앵글로색슨 경제권은 물가안정과 저금리에 따른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의 호조로 '93년에 이어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다. 독일을 제외한 여

타 서유럽지역도 금융완화기조에 힘입어 '94년에는 완만한 회복세로 반전될 것이다. 일본경제는 엔화강세 및 민간부문의 재무구조조정 지속 등으로 당분간 회복국면에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.

'94년중 국별성장률은 미국이 '93년의 2.8%에서 3.1%로, 독일과 일본이 '93년의 -1.5% 및 -0.5%에서 0.8% 및 0.5%로 높아질 전망이다.

물가상승률은 둔화추세가 지속되어 영국 및 이탈리아를 제외한 대다수 선진국들이 196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

선진국의 경제전망

단위 : %

	1992 1)	1993 e)	1994 e)	1995 e)
경제성장률				
선진국	1.7	1.1	2.1	2.7
미국	2.6	2.8	3.1	2.7
일본	0.8	-0.5	0.5	2.3
독일	2.0	-1.5	0.8	2.2
물가상승률 2)				
선진국	3.3	3.3	3.2	3.1
미국	3.0	2.6	2.4	2.6
일본	1.7	1.0	0.7	0.7
독일	4.7	4.0	2.9	2.0
경상수지				
선진국	-419	-30	-108	-7
미국	-624	-1,057	-1,340	-1,417
일본	1,176	1,406	1,363	1,342
독일	-253	-202	-147	-132
세계교역신장률	4.6	2.6	5.4	6.4

주 : 1) 각국정부 발표치, 단 1992년 수치중 선진국 및 독일(경제성장률 제외)은 IMF의 실적추정치, 경상수지는 OECD의 실적추정치 기준
2) GDP deflator 기준(단 실적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임)

자료 : IMF, World Economic Outlook, 1993. 10
OECD, Economic Outlook, 1993. 12

(자료 : 한국은행
주간해외경제)

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. 특히 미국은 '93년 2.6%에서 2.4%로, 독일은 4.0%에서 2.9%로, 일본도 1.0%에서 0.7%로 각각 둔화되었다. 영국과 이탈리아는 '93년보다 다소 높은 3.0%, 4.1%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.

'94년 중 경영수지는 대체로 균형을 이루거나 '93년보다 소폭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주요 선진국의 불균형 정도는 그다지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다.

국별 GDP에 대한 경상수지 비중을 보면 미국은 '93년의 -1.7%에서 -2.0%로 악화되며 독일은 -1.1%에서 -0.8%로 다소 개선되고 일본은 3.3%에서 3.1%로 낮아질 전망이다.

나. 신흥공업국 경제전망

(1) 경제 성장

고임금, 수출 및 내부수진, 금융개혁에 따른 설비투자 위축 등으로 2년 연속 성장세가 둔화되었던 한국 경제는 '94년중에는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 5.5%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.

이는 금리자유화 실시에 따른 금리상승효과가 단기에 그치고 임금상승 둔화 및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으로 민간투자가 되살아나는 데다 대외여건의 호전으로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.

여타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경우 '94년에는 대만이 '93년에 이어 6%의 비교적 높은

성장을 지속하겠으나 홍콩 및 싱가포르의 '93년보다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.

대만경제는 '93년 7월의 경기부양대책, 자본·기술집약산업으로의 구조조정 진전, 금융완화정책에 따른 내수확대 및 주요 수출시장인 선진국경제의 회복 등에 힘입어 6%대의 고성장이 지속될 것이며 싱가포르경제는 동남아시아 지역

의 고도성장 지속 및 선진국경제의 회복에 따른 수출호조, 외국인 투자 증대 및 금융산업의 호조로 인한 내수확대 등이 지속되겠으나 '93년보다는 다소 낮은 7.0%의 성장이 전망된다.

홍콩경제는 공공지출 증대 및 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민간 소비 증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금융긴축으로 인한 수출증가세 둔화와 홍콩반환을 앞둔

신흥공업국의 경제전망

	1992	1993	1994	1995
경제성장률 (%)				
한국	4.7	4.3	5.5	6.0
대만	6.0	6.0	6.0	6.5
싱가포르	5.8	7.5	7.0	6.5
홍콩	5.3	5.5	5.0	4.5
D A E s 1)	5.6	5.7	6.1	6.4
소비자물가상승률(%)				
한국	6.2	5.5	5.7	6.0
대만	4.5	3.5	4.0	4.0
싱가포르	2.3	2.5	2.3	2.0
홍콩	9.4	9.0	8.0	7.0
D A E s 1)	5.5	4.9	5.0	5.0
무역수지 (\$)				
한국	-22	10	17	20
대만	128	100	90	80
싱가포르	-49	-65	-60	-55
홍콩	-43	-40	-42	-45
D A E s 1)	1	0	-10	-15
경상수지 (\$)				
한국	-45	-10	0	5
대만	82	60	55	45
싱가포르	29	10	15	15
홍콩	16	15	10	15
D A E s 1)	-2	5	5	5

주: 1) Dynamic Asian Economies, 한국, 대만, 홍콩, 싱가포르, 태국, 말레이시아 등 6개국

자료: OECD, Economic Outlook, 1993. 12

정치적 불안정성확대로 '93년에 비해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이다.

(2) 물가

'94년중 한국의 소비자물가는 경기회복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으로 '93년보다 다소 높은 5.7%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만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'93년에 비해 다소 높은 4.0%를 기록할 것이다.

(3) 경영수지

'94년중 한국의 경상수지는 엔화강세 및 임금상승 둔화 등에 따른 수출경쟁력 제고와 선진국경제의 회복 등을 배경으로 무역수지가 개선되어 '93년의 적자에서 균형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. 대만 및 홍콩의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'93년보다 다소 둔화되는 반면 싱가포르의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.

2. 각 기관의 세계 경제전망

가. 기관별 선진국 경제전망 비교

OECD는 '94년중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을 2.1%로 전망하고 있는 반면, IMF와 WEFA는 각각 2.2%와 2.4%로 전망하고 있어 여타 기관에 비해 OECD가 선진국경제를 다소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. 특히 일본 및 독일의 경제성장률에 있어서는 여타 기관에 비해 더욱 비관적이다.

고용사정에 있어서는 각 기관 모두 미국이 다소 개선되는 반면 일본 및 독일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. 물가는 각 기관이 모두 오름세가 둔화되어 3% 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경상수지에 있어서는 각 기관은 일본의 흑자 규모와 독일의 적자규모는 다소 줄어드는 반면 미국이 적자폭이 다소 늘어나 선진국 전체로는 적자폭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. 세계교역신장률은 각 기관 모두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 등에 힘입어 '94년에는 '93년에 비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.

나. 기관별 신흥공업국 경제전망

OECD, WEFA 및 ADB 모두 한국경제가 '94년에는 지난 2년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6% 내외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 또한 세 기관 모두 '94년중 대만의 경제성장률을

각 기관의 선진국 경제전망

단위 : %

	1992 1)	1993 e)			1994 e)		
		IMF	WEFA	OECD	IMF	WEFA	OECD
경제성장률							
전 세계	1.7	2.2	1.2	-	3.2	2.9	-
선진국	1.7	1.1	1.2	1.1	2.2	2.4	2.1
미 국	2.6	2.7	2.8	2.8	2.6	3.0	3.1
일 본	0.8	-0.1	-0.3	-0.5	2.0	1.6	0.5
독 일	2.0	-1.6	-1.4	-1.5	1.2	1.3	0.8
물가상승률 2)							
선진국	3.3	3.0	3.8	3.3	2.7	3.7	3.2
미 국	3.0	3.0	3.2	2.6	2.8	3.3	2.4
일 본	1.7	1.2	1.0	1.0	0.8	0.8	0.7
독 일	4.7	4.6	4.9	4.0	2.9	3.6	2.9
경상수지(억弗, %) 3)							
선진국	-419	-512	-237	-30	-519	-445	-108
미 국	-624	-1,116	-911	-1,057	-1,300	-989	-1,340
일 본	1,176	1,372	1,288	1,406	1,413	1,184	1,363
독 일	-253	-321	-215	-202	-299	-183	-147
세계교역신장률	4.6	3.0	3.8	2.6	5.0	5.5	5.4

주 : 1) 각국정부 발표치, 단 전세계, 선진국 및 독일(경제성장률 제외)은 IMF의 실적추정치 기준임

2) IMF, WEFA는 소비자물가, OECD는 GDP 디플레이터 기준

3) 1992년 실적치 및 IMF WEFA 전망치는 억弗기준, OECD 전망치는 GDP대비 경상수지흑(적)자 비중(%) 기준임

자료 : IMF, World Economic Outlook, 1993. 10

WEFA, World Economic Outlook, 1993. 10

OECD, Economic Outlook, 1993. 12

U.S. Economic Review, 1993.11

각 기관의 신흥공업국 경제전망

	1992	1993 e)			1994 e)		
		OECD	WEFA	ADB	OECD	WEFA	ADB
경제성장률 (%)							
한국	4.7	4.3	4.9	4.5	5.5	6.4	5.8
대만	6.0	6.0	6.1	6.0	6.0	6.4	6.3
싱가포르	5.8	7.5	8.1	8.4	7.0	7.4	7.0
홍콩	5.0	5.5	5.3	5.6	5.0	4.6	5.3
D A E s 1)	5.6	5.7	5.6	5.4	6.1	6.2	6.0
소비자물가상승률(%)							
한국	6.2	5.5	5.3	5.5	5.7	5.1	6.5
대만	4.5	3.5	2.9	3.4	4.0	2.9	3.6
싱가포르	2.3	2.5	2.4	2.5	2.3	3.1	3.0
홍콩	9.4	9.0	8.6	8.7	8.0	9.1	9.0
D A E s 1)	5.5	4.9	4.7	5.1	5.0	4.7	5.7
경상수지 (억\$)							
한국	-45	-10	-11	-28	0	-18	-10
대만	79	60	68	50	55	43	44
싱가포르	29	10	19	33	15	19	35
홍콩	16	15	-20	-	10	-24	-
D A E s 1)	-2	5	56	-	5	19	-

주 : 1) WEFA 및 ADB는 아시아 NIFs 4개국 기준

자료 : OECD, Economic Outlook, 1993. 12

WEFA, Asia Economic Outlook, 1993. 10

ADB, Outlook For Asia (1993. 10)

<자료 : 한국은행 : 주간해외경제>

93년과 비슷하거나 높게, 싱가포르 및 홍콩의 성장률은 '93년보다 낮게 전망했다. '94년 중 물가상승률의 경우 OECD 및 ADB는 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'93년보다 높게 보았으나 WEFA는 낮게 전망했다. 세 기관 모두 대만에 대해서는 '93년보다 높은 3~4%로 전망한 반면 싱가포르 및 홍콩에 대해서는 OECD가 '93년보다 낮게, WEFA 및 ADB가 높게 전망했다.

경영수지의 경우 OECD와 ADB는 한국의 경상수지 적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반해 WEFA는 오히려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. 세 기관 모두 대만은 경상수지 흑자폭이 축소되는 반면 싱가포르는 경상수지 흑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.

